

사회

전남 교육의원들 수상한 특강료

교육청 직원 대상 강연 ... 예산심의 앞두고 2명 100만원씩 받아

“교육청의 의원 행하기 아니냐” 뒷말

전남도교육청을 견제·감시해야 할 교육의원들이 고액의 강사료를 받고 교육청 직원대상 강연에 나서 뒷말을 낳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L모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P모 의원은 12월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직원대상 ‘저명인사 초청 강연’을 한 뒤 강사료 100만원씩을 받았다.

L의원은 ‘민선 교육감 시대와 의회의 역할’, P의원은 ‘100년 대계를 지향하는 지방자치 교육자치 제도’를

주제로 1시간여 강의했다.

그러나 교육의원들이 강의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데다 강의로 또한 고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명인사 초청강연’에서 도교육청의 견제기관인 의회의 교육의원 2명이 잇따라 강연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이 강좌가 시작된 후 처음이었다.

도교육청이 이들을 비롯한 강사들

에게 지급한 강연료 100만원은 광주 시청의 강사인 ‘빛고을E&C 아카데미’의 두배에 달한다. 시는 호남권 인사의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청은 강사료 책정 기준없이 일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특강한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의 ‘교육의원 행하기’의 일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도 교육청의 명확한 저명인사 분류·초청 기준은 없지만, 그동안 이 강좌에서 특강한 강사는 작가 고도원 씨, 장상 전 민주당 최고위원, 안병영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주로 교육청과 무관한

전국의 저명인사들이었다.

이에 대해 L의원은 “장 교육감이 집행부와 의회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해 강단에 섰다”며 “강의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고유업무와 연관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더구나 강사료를 문제삼는 것은 상식 밖이다”고 말했다.

P의원은 “원고를 쓰는 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고 강의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깎아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교육전문가로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여수해경이 지난해 경남의 밀치잡이 선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강평길 前 여수해경서장 인사대가 수뢰혐의 조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찰이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 권리와 경찰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평길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강 전 서장이 근무했던 여수해경 서장실과 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강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강 전 서장은 여수 연안의 조업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남의 대형 선사 등으로 후배들에게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여수해경이 지난해 경남의 밀치잡이 선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바꾸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서장은 또 지난해 여수해경 인사 과정에서 승진을 대가로 경찰관 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여수해경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강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여부와 규모 등을 캐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여수해경 서장으로 부임한 강 전 서장은 이날자로 동해지방해양경찰 정보수사과장으로 전보발령이 났으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직위해제 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오리 먹어도 안전해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11일 북구 유동 ‘오리 요리의 거리’의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오리·닭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필리핀 사촌들과 함께 살게 대통령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필리핀에 있는 사촌언니를 한국으로 오게 해주세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군산의 한 어린이가 청와대 게시판에 간곡한 호소의 글을 남겼다.

군산서해초등 박지혜양 엄마 투병 중 보호자 없어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 글 사촌 초청 법적으로 무리

‘대통령 할아버지께’로 시작한 글을 쓴 주인공은 군산서해초 6년 박지혜(13)양.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박양은 필리핀에 있는 사촌 언니·오빠들을 한국으로 불러오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박양은 “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힘든 일을 하지 못하신다”며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촌 언니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술 후 필리핀에 있는

이모가 한국어로 들어와 보호자 역할을 해줬지만, 이모가 돌아간 후 다시 박양 자매 둘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박양의 부모는 군산에서 처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섬 신시도에서 식당일을 하고 있으며, 박양 자매는 학업을 위해 군산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또 박양은 “한국에 있는 사촌들은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왜 외국에 있는 사촌들은 오고 갈 수 없는지요”라고 물으며, “사촌언니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단기 종합비자를 통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부모·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친인척은 불허하고 있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박양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적으로 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유무와 상관없이 외국에 있는 친인척을 무조건 데려올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최열 환경재단 대표 검찰,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1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공금 전용 의혹에 대해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환경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쓴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개발사에서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전주 버스파업 노조원 158명 입건

덕진경찰, 운행방해 등 혐의

전주 덕진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주지역 버스회사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운행방해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민주노총 조합원 1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또 폭력과 출차 방해 혐의로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부터 각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운행방해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측은 ‘선(先) 운영

재개, 후(後) 대화’를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골프채 등 팔겠다 속여 1300만원 사기 들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1일 인터넷을 통해 골프채 등의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민모(23)씨와 김모(2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골프채를 산다”는 글을 올린 정모(38)씨에게 연락해 통장으로 70만원을 송금 받고 잠적하는 등 18명에게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해 9월 게임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조모(26)씨에게 65만원을 송금하는 등 6명으로부터 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양수현기자 yang@

법정관리 중 회사 자금 수역 가로채

광주지검, 前 대표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1일 법정관리 중인 회사 자금 수역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모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전 대표이사 황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과정에서 생긴 금속 부스러기를 업체 2곳에 팔면서 자신과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6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9년 1월 자신의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해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수의 미끼로 투자금 사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광민섭 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신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

정 진출,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조회서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9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투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매일 투자금의 3%를 주겠다”며 카페 회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내·처남 흥기 찌르고 50대 번개탄 피워 자살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50대 남성이 아내·처남을 흥기로 찌러 중상을 입힌 뒤 자살했다.

11일 오전 11시경 순천시 상사면 생치리 상사법 인근 야산에 주차된 김모(57)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김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순천경찰 형사와 직원이 발견했

다.

김씨는 지난 10일 순천시 상사면 자신의 집 앞길에서 아내(39)·처남(41)의 얼굴·목·가슴을 흥기로 수차례 찌러 살해하려던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 승용차 안에서는 번개탄·극약·소주병이 발견됐다.

아내·처남은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김씨의 집에 갔다가 변을 당한 뒤 목격자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술 취해 주점 출입명 때리고 행패

○노래방 책자로 주점 여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친 것도 모자라 이를 항의하던 업주 부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 2명이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4)씨 등 2명은 이날 새벽 2시 40분경 광주시 서구 처평동 한 주점에서 출입명 때리고, 이를 말리던 업주 성모(52)씨 부부의 얼굴을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박씨에게 “노래를 부르고 싶으니까 책자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는데 미처 이를 듣지 못한 박씨가 책자를 가져다 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박씨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남을 일